

<“북아프리카와 시실리아에 대한 파티마조의 종교정책” 발표 요약문>

황병하(조선대학교)

파티마조의 시아 이스마일파 사상은 909년 파티마조의 설립부터 1094년 알무스탄시르의 죽음까지 약 185년 동안 통합된 형태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형태로 분열되었다. 이 시기는 파티마조가 정치적·종교적 정통성을 유지했던 시기였다. 이스마일파 사상은 이프리카야(오늘날의 튀니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제국의 국가 종교였으며, 973년 이후 이집트의 국가 종교였다. 파티마조의 칼리파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시아 이스마일파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이맘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는 이스마일파의 황금 시기였으며, 이스마일파 사상과 문학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 파티마조는 정치적·종교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적, 경제적, 과학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파티마조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압바스조와 부와 이흐조와 셀주크조를 상대로 정치적 투쟁을 벌였으며, 지중해에서 비잔틴 제국과 패권 다툼을 벌였고, 파티마조 중심 시아파 칼리파 이슬람 제국의 수립과 이스마일파 사상의 이슬람 세계 확산을 원했다. 루이 마시농은 이슬람 세계의 10세기를 이스마일파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본 논문은 파티마조에 관한 문헌과 기록 중 시아 이스마일파 사상, 북아프리카의 종교적 현황, 시실리아의 종교적 현황, 그리고 이집트 순니파의 등장과 시아 이스마일파의 몰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와 시실리아에 대한 파티마조의 종교와 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의 종교적 다양성은 문화적·예술적 다양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루이 마시농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의 10세기는 이스마일파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이스마일파 사상과 타 종교와의 관계를 고찰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